양극화에 부화뇌동하는 음악계

홍 승 찬 · 음악평론가

세상이 그러니깐 예술도?

세상이 다 그래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난 택시 기사는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서울로만 몰려드는지 알 수 없다' 고 푸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왔다' 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인다. 소위 명문 대학 나온 소수의 사람들만 원하는 직장 얻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공부 못하는 자식을 두둔하는 남편은 아내로부터 모진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하고, 행여 과외 공부라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가는 '왕따' 당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 같은 동네라도 단지 안에 학교가 있는 어느 아파트는 길 건너 학교가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 몇 천씩이나 더 비싸고 유명 학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부르는 게 값이다.

학업 성적은 좀 처지지만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바라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고 출신 학교는 좀 그렇지만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일에 잘 길들여지다 보니 졸업해서 가고 싶은 직장이라는 것도 빤할 수밖에 없다. 한 동안은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명문대 출신 수재들이 몰리더니 지금은 돈도 많이 주고 잘릴 염려도 없을뿐더러 여가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공기업들이 선망의 대상이라고 한다. 들어가려는 입장에는 토지가 됐던 도로가 됐던 공사면 그만이고 뽑는 쪽에서는 출신 학과보다 출신 학교를, 업무와 관련된 능력이나 지식보다 영어 성적을 따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이 다 그래서 살 빼느라 여념들이 없고 성형을 해서라도 잘난 외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유행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잘 아는 어느 서양 사람이 말하기를 과거에는 동양 사람들이 다 같아 보였는데 지금은 최소한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여성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예쁘고 날씬하면 한국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입고 걸친 것이 대체로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예술이라고 다를 리가 없고 공연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수가 없다. 세종문화회관이 문을 연 다음 지역마다 새로 생기는 공연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화회관, 문예회관이라는 간판을 내 걸었다. 이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양도 다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서울에 예술의전당이 생긴 이후로는 '전당' 이라는 이름이 한 동안 유행했었다. 그래도 같을 수는 없어서 '문화예술의전당' 이니 '문화의전당' 이니 하는 이름들을 붙였지만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었다. 급기야 이것을 문제 삼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우리나라의 공연장들이야말로 따라 하기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이름부터 따라한다면 그 내용도 빤한 일이다. 예술의전당이 무대에 올려서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 곧 공연 선정의 최우선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이 뮤지컬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남들이 다 쳐다보고 따라 하려는 판에 미치게 될 영향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돈 되는 일만 쫓아 부하뇌동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이 그래서, 또 남들이 다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2006년 예술의전당은 뮤지컬 「맘마 미아」에 온통 매달릴 태세이다. 4개월이 넘는 공연 일정이니 단단히 뽕을 뽑을 셈이다. 기왕지사 뮤지컬이라면 새로운 작품이라도 선보일 일이지 연전에 같은 무대에 올려 다 우려먹은 것을 또 하려는 심사가 너무 빤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금 우리나라 공연장은 예술의전당과 그 나머지로 나뉘어 있고, 공연 장르는 뮤지컬과 그 나머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나머지 가운데 음악은 또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벌어져 있어 예술의전당이 아닌 다른 공연장에서 뮤지컬이 아닌 음악회를 열면서 국내 연주자로 무대를 꾸민다면 그 결과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늑대소년' 된 공연장과 공연기획사

한 때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던 유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얼룩말을 잡아오면 100만 달러를 준다는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는 것이다. 그것을 읽은 독일 사람은 먼저 도서관으로 가서 얼룩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국 사람은 당장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했다. 이탈리아 사람은 흰말을 사서 검정 페인트로 무늬를 그려 넣고, 중국 사람은 점박이 말을 사서 얼룩말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함께 있던 한국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 한국 사람은 아직도 신문을 들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이거 정말로 100만 달러를 주는 걸까?"

지금 우리나라 공연장은 예술의전당과 그 나머지로 나뉘어 있고, 공연 장르는 뮤지컬과 그 나머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나머지 가운데 음악은 또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벌어져 있어 예술의전당이 아닌 다른 공연장에서 뮤지컬이 아닌 음악회를 열면서 국내 연주자로 무대를 꾸민다면 그 결과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불신풍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지휘자를 두지 않는 상임 지휘자에서부터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 최고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 대목에 이르면 민감해진다. 가난한 신학생을 뒷바라지해서 신학교 졸업시키고 전도사, 부목사를 만들었더니 자신을 키워준 담임목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더라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경제 논리로 이해하기보다 신용의 문제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함이 마땅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늘 되풀이되는 극단적인 대립이나 노사 간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서로 믿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난국이라 일컬었던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정되었던 많은 초청공연들이 취소되었다.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공연을 성사시키는 것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무는 것이 이익이라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 몇몇 사례가 있었고, 그런 공연 가운데 하나는 출연자 스스로가 약속된 출연료의 상당 액수를 포기하는 미담을 전하기도 했다. 아마 취소된 공연들도 주최 측이 성의를 다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출연자들로부터 양해와 양보를 얻어내고 더불어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올 때마다 주관사가 바뀌기도 한다.

이런 마당에 공연을 보려는 관객들이라고 주최 측을 신뢰할 리가 없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을 한다한들 누구나가 인정하는 몇몇 소수의 유명 연주자나 연주 단체가 아니라면 선뜻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공연장이나 공연 기획사

로열 코벤트 가든 오페라 하우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올 때마다 주관사가 바뀌기도 한다. 공연을 보려는 관객들이라고 주최 측을 신뢰할 리가 없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을 한다한들 누구나가 인정하는 몇몇 소수의 유명 연주자나 연주 단체가 아니라면 선뜻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공연장이나 공연 기획사가 모두 늑대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계 최고라고 해서 믿었는데, 나중에야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간 공연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초대권으로 들어와 있었다면 다시는 그런 불쾌한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가 이렇게 늘 '역시나'로 끝나버리니 처음부터 확실한 것만 찾게 된다.

가 모두 늑대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계 최고라고 해서 믿었는데, 나중에야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간 공연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초대권으로 들어와 있었다면 다시는 그런 불쾌한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가 이렇게 늘 '역시나'로 끝나버리니 처음부터 확실한 것만 찾게 된다.

전통-현대, 입지-재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있는 연주회장에서 뉴욕 필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같은 공연장에서 그 지역 어느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는데, 두 공연 모두 객석에 빈자리가 없었다고 한다. 물론 뉴욕 필의 티켓 가격과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티켓 가격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라 하더라도 초대권으로 객석을 채우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뉴욕 필 공연의 관객들은 대부분 평상복 차림이었던 데 비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장 차림이었다는 것이다. 뉴욕 필의 연주회는 그 연주 자체를 듣고 즐기면 그만이지만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는 스스로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가 애써 만든 것이기에 당연히 격려해야 하고 스스로의 일 인양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결실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어느 도시를 방문했던 누군가가 그 지역 작곡가들의 발표회를 갔다고 한다. 음악을 전공한 입장에서 듣기에도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작품들이었는데, 객석을 가득 채운 청중들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한다. 호기심에 공연이 끝난 다음 한 청중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그 사람 역시 지겨웠다는 대답을 듣고 의아한 나머지 다시 질문을 던졌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려 한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것에 일단 주목함이 마땅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다면 상대에게 직접 물어야 하고 그래서 이해하게 된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면 그것을 또한 밝

혀야 하며 그렇게 서로가 소통해야 한다."

오래 전 런던의 로열 코벤트 가든 오페라 하우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건물이 낡아 보수가 필요했지만 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었고, 정부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복권 발행을 결정하였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영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라면 오페라만큼 매력 있는 볼거리가 따로 없겠지만 이후의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어느 오페라 극장 할 것 없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그 당시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던 영국 정부의 입장으로는 그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복권을 만들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당장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복권은 저축으로 목돈을 만질 수 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데,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축구장이면 몰라도 오페라 극장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문화 선진국 영국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 벌써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연의 양극화 현상도 미리 예견된 일이었던 셈이고,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닌 것이다. 지금은 뮤지컬이라도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마저 식상하고 나면 공연예술 전체에 이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웨스트엔드의 그 수많은 뮤지컬 극장에는 오래 전부터 관광객들만 북적거리고 있다.

1997년 10월 10일 단이쿠마(團伊玖磨)의 오페라 「다케루」를 초연하면서 문

도쿄 신국립극장은 일본 최초의 오페라 · 발레 전용극장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년이나 늦게 복합문화센터를 현실화한 데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말고 다른 고민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입지와 재정의 문제였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극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함께 조성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더불어 이렇게 조성된 시설의 임대수입을 극장 측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한 극장의 재정문제까지 해결했다.
10년이 더 늦더라도 예술의전당을 이렇게 신중하게 만들었더라면 적어도 재정 문제 때문에 뮤지컬을 해야 하고 '조용필 쇼'를 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을 것이다.

을 연 도쿄 신국립극장은 일본 최초의 오페라 · 발레 전용극장이다. 일본 문화성이 제2국립극장 설립준비협의회를 가동한 것이 지난 1972년이었으니 계획을 세우고 25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었다. 1966년에 문을 연 국립극장은 가부키 등 전통예술 전용극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오페라 무대로 도쿄 문화예술회관이나 NHK홀 등 다목적 공연장이 주로 쓰였다. 고민 끝에 일본 문화성이 통산성 산하 도쿄공업시험장이 있던 하츠다이(初台)를 신국립극장 신축부지로 결정한 것은 1980년이었고, 여론 수렴과 설계 과정을 거쳐 1992년에 착공했다. 설계 공모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이 극장 못지않게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 콘서트홀, 상가, 사무실, 레스토랑이 입주하는 고층빌딩 '도쿄 오페라시티'가 함께 들어서게 됐다. 도쿄 오페라시티는 민간기업이 입주해 운영하고 있는 54층짜리 빌딩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신국립극장까지 포함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이 우리보다 10년이나 늦게 복합문화센터를 현실화한 데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말고 다른 고민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입지와 재정의 문제였다. 그들 생각으로는 백화점이든 공연장이든 사람들이 근접하기 쉬운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경에서 그만한 입지라면 이만큼 넓은 빈 땅이 있을 리 없고 혹시 있다 해도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부지를 선택하여 부족한 입지조건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극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함께 조성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더불어 이렇게 조성된 시설의 임대수입을 극장 측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한 극장의 재정문제까지 해결했다.

10년이 더 늦더라도 예술의전당을 이렇게 신중하게 만들었더라면 적어도 재정 문제 때문에 뮤지컬을 해야 하고 '조용필 쇼'를 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다른 지역의 공연장들도 그 뒤를 따랐을 것이고 그 결과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들을 과감하게 무대에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공연의 양극화를 가져 온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병패를 지적하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빨리'를 마지막으로 고발한다.